

12. 韓·日 建設業界 協力과 發展方向(Ⅱ)

〈'94 동경국제주거박람회 세미나〉

主催：韓國經濟新聞社, 韓國住宅協會

이 내용은 지난 4월 25일 한국경제신문사와 본 협회가 공동 주최한 동경국제주거박람회의 세미나 내용인바 3차로 나누어 게재합니다. (편집자주)

對日 建設 進出現況 및 向後 進出對策

洪 判 基(주일 대한민국대사관 건설관)

1. 일본 건설시장 현황

- 일본 건설시장은 연간 7,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최대의 건설시장(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율은 1:2 정도)
-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(1990-2000년) 430조엔(약 3.4조 달러) 규모의 공공투자를 할 계획
 - 별도의 민영화된 JR.NTT가 25조엔 규모 투자 예정
- 일본 건설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국제화의 분위기 성숙으로 외국 건설업체들의 진출 가능성 증대
- 일본의 입찰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외국업체의 참여 용이
(94.1.18: 일정부 “공공공사 입찰 계약절차개선 행동계획” 발표)

2. 대일 건설시장 진출 필요성

- 해외 건설시장 다변화 정책에 의한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
 - ※일본 건설시장의 1% 수준만 수주하더라도 70억 달러 규모이므로 적정 시공물량의 확보가 가능
- 선진화된 건설기술 습득 및 시공 관리 능력의 숙련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
- 한일 양국의 상호 비교우위 통해 제3국 시장에서의 공동협력 도모
 - ※일본 우위부문(자본, 설계 및 감리, 관리)
 - 한국 우위부문(시공, 인력, 자재)
- “세계의 건설부문 정보 수집활동의 전진 기지로 활용”

3. 대일 건설시장 진출현황

- 일본 건설시장에는 우리나라가 '89년 이래 13개 기업이 일본 건설업허가를 취득하였고 현재 12개기업이 영업활동중에 있음.
- 현단계는 아국기업이 발주자 및 일본의 협력기업에게 신뢰를 획득하는 초기단계로서 '93년말까지 수주실적은
 - 국내 민간부문 수주에 139백만 \$ (22건)
 - 제3국 공동수주에 1,123백만 \$ (13건)
 - 계 35건에 1,262백만 \$ 의 수주실적을 쌓음.
- 정부발주의 공공공사 수주실적은 아직 없으나 최근에 들어와
 - ① (주)대우의 대형민간공사 콘소시움 참여에 의한 신뢰도 구축
 - ② 삼성건설의 관서국제공항 터미널 공사등에 공동기업 지명(3회)
 - ③ 한진개발의 요코하마항 물류센타공사에 공동기업으로 참여하여 낙찰되는등 점진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음.
- 특히 94.4.이후는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시 입찰의 투명성 및 경쟁성의 제고와 외국기업의 참여시에 장애 요인 제거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면 인접국으로서의 이점을 가진 아국기업의 참여와 활동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.

〈참고〉

- 건설업 허가 취득 기업 : 12사(허가순)
삼성, 대우, 현대, 쌍용, 극동, 한진, 럭키개발, 삼부, 롯데, 기산
※동아건설은 93.8. 허가소멸되었으나 재수속계획임.
- 건설대신 특인 취득기업 : 20개사(허가순)
상기 12개사, 대림, 동산, 유원, 벽산, 선경, 서광, 범양, 코오롱
※현대건설등 7개 업체는 일본 건설업단체 연합회(건단련) 특별회원으로 가입
· 현대, 삼성, 대우, 동부, 쌍용, 극동, 한진

4. 지금까지의 건설시장 진출의 문제점

- 공공사업의 입찰은 모두 지명경쟁입찰실시로 외국기업의 참여곤란
 - 입찰참가시 요구되는 등급판정이 아축에게 낮게 부여되어 소규모 공사참여만이 가능
 - 등급이 높게 부여된 업체도 P.Q심사시 제3국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입찰참여가 불가능
 - 입찰자격심사시 탈락사유를 공개하고 있지않아 업체의 추후 입찰 참여에 어려움
- 일본 특유의 폐쇄적 시장관행으로 외국업체참여에 제약
 - 일본업체간 담합으로 외국업체의 참여곤란
 - 발주처의 정보제공 기피로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계약
 - 일본업체들의 오랜 원·하청 세대관계로 협력업체 모색 곤란
- 기능인력의 입국제한
 - 일본 건설시장에 확보불가능한 특수기능공만 입국허용

5. 최근 일본건설시장의 변화추이

가. 일본의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발표 및 시행

- 94.1.18. 일본의 대형공공공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제도 도입과 외국기업의 적정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장개방조치 발표

- 미일건설협의회에서의 미측의 강력한 시장 개방효과
(94.1.20까지 개방안 제시않을 경우 제재조치 발동시사)
- 일본국내의 건설업계 뇌물사건의 연이은 노정으로 국민의 비판 고조 및 호소가와 신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의 발로
- ※일본이 시장개방 대상국을 기존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국(23개국)에만 한정함에 따라 신규가입예정(96.1)인 한국은 적용대상국에서 제외

일본공공시장 개방계획 개요

- 실시시기 : '94년도 예산(94.4부터)과 연관되는 공공사업부터 실시
- 대상사업
 - 정부 부 : 450만SDR(약 50억원)이상공사
 - 정부관련기관 : 1,500만SDR(약 160억원)이상공사
 - *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,500만SDR 이상공사에 대해서 동원칙을 적용하도록 권장

주요조치내용

- 대상사업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방식 채택
- 외국기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 실시
 - 일본이외에서의 기술자수 및 영업연수도 포함
 - 제3국공사 실적인정
 - 본국 모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를 포함한 평가가능
- 고충처리절차 및 담합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조치 강화

나. 한일정부간 건설협회의 지속적인 추진

- 92.1.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한국건설업체의 일본공공공사 참여의 장해요인 해소 요청
- ※장해요인 : 제3국 공사실적인정 본사의 기술자 및 영업년수 불인정, 도급등급 심사사유와 탈락시 사유 미통보

- 93.5. 한국 무역산업기술 협력위원회의 건설분과회담 및 한일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일본의 공사 발주처가 도급등급 심사시 제3국 공사 실적 인정하는데 합의
- 94.3. 한일정상회담 및 한일건설장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제3국 진출에 공동협력 및 정례적인 건설경제국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
- 94.4. 한일신경제협력기구(NIEF)에서 정부간의 보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논의

다. 민간차원에서 진출기업의 신뢰성 점증

- 각 진출기업의 자격등급이 발주처에 의해 향상조정되고 있음.
 - 건축, 토목분야 A등급취득 및 C등급에서 B등급상향조정
- (주)대우가 대형민간공사에 일본의 대기업(제네콘)과의 콘소시움 구성에 자기지분 갖고 계속 참여
 - CANAC CITY박다(하가다) 신축공사(93.10~96.2)
(사업액 462억엔 중 대우지분 23억엔 : 12개회사 J/V)
 - 구주 System & D Center 사업(93.12~96.1)
(사업액 59억엔 중 대우지분 3억엔 : 5개회사 J/V)
 - 북강 A.I.T(아시아 정보교역센터)사업(93.12~96.1)
(사업액 41억엔 중 대우지분 8억엔 : 3개회사 J/V)
- 삼성건설이 판서공항 공공공사(제3섹타)에 최초로 3건공사에 지명통보 받아 수주가능성 점차 증대(91.12, 93.6)
- 요꼬하마 유통센터 공공공사(제3섹타)에 한국의 6개 기업이 동시에 지명통보받고 그중 한진건설이 동해홍업(일)과 J/V로 낙찰(94.1~제3빌딩 사업액 147억엔)
- 아축발주의 건축물 시공으로 한국고유의 건축미가 일본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
 - 주북강 총령사관 신축공사(89.4~90.2 대우)
※92.2.16. 북강시 도시 경관상 수상
 - 주요꼬하마 총령사관 신축공사(93.1~94.6 럭키)
※요꼬하마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평판이 점증
 - 동경민단본부 신축공사(93.10~94.7 롯데)

※새로운 공법적용으로 비용절감

-가나가와현 한국정원공사(93.12~94.3 극동)

※한국정원의 고유한 아름다움 인식 확산

-주나고야 총령사관 신축공사(94.11 착공 예정)

※중부지역의 한국건축미 보이도록 설계중

○ 제3국 공사 공동수주의 상호보완적인 협력 필요성 인식 증대 및 실제 협력 관계 증대

○ 일본협력업체와 기술협력으로 진출업체별 기술자 및 관리자 연수 지속

- '92년까지 2,061(12개업체)

- '93년 1,088명(9개업체) 계 3,149명

6. 향후 진출 대책

○ 독특한 일본문화의 이해

- 대일감정의 극복 및 의식개혁 필요

(인간관계의 중시, 신뢰로 묶여진 집단 의식, 최선의 질추구)

-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출

○ 정부차원에서 건설외교를 적극추진하여 업체진출시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 및 상호건설

시장 개방시 협력방안 모색

- 한국업체에 대해서도 공공건설시장 개방조치 확대적용 요청

○ 민원차원에서

- 일본업체와의 신뢰도 증진 및 협력강화로 진출기반 구축에 주력

• 민간기업 직원의 현지연수를 통한 시공기술, 경영, 노사관리 기법 습득으로 진출요
원 양성

• 일본업체와 J/V 형태로 민간공사로부터 제3섹터공사 및 공공공사 참여 추진

• 임원급이 상주하여 일본기업과 대응한 상호신뢰 구축

• 현지 하청업체의 활용 및 유대 관계 지속에 주력

- 교포 건설업체와 협력하여 수주기회확대 및 시공경험 축적

- 제3국 시장에서 공동참여 경험과 유대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 건설시장에 진출

- 건설업이 단순시공에서 종합경영기법(설계, 시공, 자재, 금융, 관리등)으로 운영키 위
한 꾸준한 향상 모색